

은행들 대면 영업점 축소... '탄력점포' 대안 부상

최근 10년새 광주 33개·전남 51개 ↓
이용자 특성별 영업시간 달리 운영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등 개설
"고령층 등 접근성 제고 확대 필요"

국내 은행들이 경영 효율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점차 폐쇄하면서 고령층 등 은행 이용자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을 달리 하는 '탄력점포'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국내은행 지역별 점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국내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수는 총 4842개로, 지난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892개가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말 5734개 △2019년 말 5654개 △2020년 말 5487개 △2021년 말 5226개 △2022년 말 4980개 △2023년 말 4876개 등으로 은행 점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국내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은 159개로, 지난 2014년 6월 192개에서 10년 새 17.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는 308개의 지점이 있었으나 지난 6월 257개로 16.56% 감소했다.

이처럼 은행 점포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탄력점포' 운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에게 탄력점포는 기존 은행 점포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탄력점포는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탄력점포는 총 1048개로, 유형별로 보면 관공서 소재 점포 (440개),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32개), 상가 및 오피스인근 점포 (131개), 환전센터 (11개),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434개, 기기수 기준) 등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나인투스식스뱅크(9to6)'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72개였던 점포에 지난해 하반기 10개를 추가해 현재 82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광주지역에는 광산종합금융센터, 광주종합금융센터, 첨단종합금융센터 등이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4시 이후 타기관 연계업무는 일부 제한된다. 전남 지역에는 순천종합금융센터 등이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나인투스뱅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가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90% 이상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탄력점포를 광주유통센터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점포'를 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16곳의 영업점은 일요일에도 오픈한다. 광주지역에는 광산지점이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4시), 일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 문을 열고 있으며, 일요일 주업무는 일부 신규 거래·해외송금 관련 업무다.

호남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도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12시)까지 포용금융센터를 운영 중이며 여신업무 취급(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 수신업무는 불가하다. 이외에도 광주시청점, 북구청점, 목포시청점, 전남도청점 등 광주·전남지역 9개의 점포가 오후 6시까지 탄력점포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후 4시 이후에는 공과금 수납, 공채발행 등 관공서 관련 업무만 가능하다.

자세한 탄력점포 현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금융서비스 정보-탄력점포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점

포들의 업무 가능여부는 지점 문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각 은행이 점포 축소 대안으로 탄력점포 수를 늘리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부 유형의 탄력점포가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탄력점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미자(60)씨는 "이용하는 은행의 지점을 찾아가려면 최소 도보 20분, 차로 5분 이상 나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일찍 문을 닫으니 불편한 점이 많다. 스마트폰 사용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대면 거래가 꼭 필요하다"며 "은행 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등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식품명인' 오픈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푸드에비뉴에 식품명인들의 손맛 가득한 전통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명인들의 매장이 신규오픈했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식품명인 32호 강봉석 명인의 초청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두레촌', 옛 조선왕실의 장맛을 담고 있는 식품명인 제 37호 권기욱 명인의 '상춘식품', 90년 전통의 젓갈 명가 수산식품명인 제5호 김정배 명인의 '김정배젓갈'까지 다양한 식품 명인들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규오픈 기념으로 다음달 1일까지 김정배 젓갈은 15% 할인, 상춘식품은 10% 할인하며, 두레촌도 12월 8일까지 1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호타이어, NBA '애틀랜타 호크스' 후원

2027년까지 공식 스폰서

금호타이어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애틀랜타 호크스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애틀랜타 호크스팀은 2007-2008시즌부터 꾸준히 동부 플레이오프권에서 플레이오프 49회 진출(우승 1회)을 이뤄낸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NBA 팀으로 트레이영, 보그다노비치 등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 포진돼 있다.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애틀랜타 호크스팀의 홈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아레나' 내 코트 옆 전광판, 골대 등에 브랜드를 노출할 예정이다. 또 애틀랜타 호크스팀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 금호 매치데이, 하프타임 이벤트, 선수 사인회 외에 지역 라디오, TV



등을 통한 광고 활동도 병행해 공식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4대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NBA는 경기당 평균 관중이 2만명에 육박하며, 200여 개국의 방송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경기가 중계되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글로벌 타

이어 업계 최초로 NBA와 후원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NBA 및 NBA D-리그(NBA하위 리그)의 공식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다.

조남화 북미본부장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공장과 함께 판매법인, 2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전략 시장으로서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지아주 지역 사회 내 더욱 탄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스폰서십을 결정했다"며 "스포츠가 갖고 있는 승리에 대한 열정과 스포츠맨십이 당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결부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75년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다변화하고 확대, 교체용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판매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제네시스,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활용

제네시스가 고객들의 더 나은 자동차 생활을 위한 '선제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네시스 선제 케어 서비스'는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을 활용해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고장 및 이상 현상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차량 상태관련 안내를 MY GENESIS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안내전화와 함께 긴급출동, 견인 등 후속 조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제 케어 서비스는 차량 고장을 감지

하는 '안심 케어'와 차량 고장 이의 단순 운행 관련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케어'로 구성돼 있다.

제네시스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다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내년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여 전세계 고객들에게 향상된 차량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네시스 선제 케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genesi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

이마트, 겨울철 대비 난방·방한 용품 할인전



이마트가 오는 28일까지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열고 히터, 전기요, 온수매트 등 겨울 난방·방한용품부터 내의, 겨울 의류 등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통해 '겨울나기 필수템'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열고 히터, 전기

요, 온수매트 등 겨울 난방·방한용품부터 내의, 겨울 의류 등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엘빈 석영관 히터'를 정상이 7만9000원에서 약 30% 할인

판매하며, '신일T/P 전기요 모던그레이(싱글/더블)'는 각 1만5000원 할인한다.

이밖에도 '퓨렌더 탄소열선 전기요(싱글/더블)'는 각 1만원 할인된 5만9000원대, 6만4900원대에, '경동나비엔 속면 온수매트(싱글/퀵)'는 각 10만원 할인된 싱글 사이즈 29만원대, 퀵 사이즈 3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3H 한일열선기 탄소전기요(싱글)'은 행사카드 결제 시 3만원 할인된 5만원대에 판매한다.

겨울 의류와 내복 등 방한용품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28일까지 성인/아동 내복류는 행사카드 2매 이상 구매 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에 보온성까지 잡은 '데이즈 플러피 점퍼'는 9800원 균일가에 준비했다.

입점 점포에 한해 브랜드 의류 할인전도 함께 진행된다. '탑텐·탑텐키즈'는 다음달 1일까지, '폴햄·폴햄키즈'는 28일까지 겨울 인기 의류들을 1+1로 판매하며, '아가방 겨울 내의 2중'은 28일까지 각 9000원대에 선보인다.

나다운 기자

